근본에서 출발해야...

이 동 식 / KBS-ITV 편집주간

남미의 대국 브라질에 비상이 걸렸다. 브라질 여성들의 모유수유 비율이 8%대로 떨어진 것이다. 언론들이 연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하자 국가적 차원에서 '엄마젖 먹이기' 캠페인이 벌어지게 됐다.

유명 여배우인 루이자 토메도 두 달 전 쌍둥이를 낳아 엄마 젖을 먹이는 것은 자연의 기적이라며 모유 수유의 필요성을 옹호한다.

브라질도 소아과학회 등에서 나서서 생후 6개월까지라도 아기에게 엄마젖 만을 먹일 것을 공식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는 여성은 극히 일부다.

부유하고 교육받은 여성들은 엄마 젖이 제일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브라질의 가난한 여성들은 아직도 모유보다 분유가 아기 건강에 더 좋다고 착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엄마는 미용 때문에 자신의 아기들을 병에 걸리게 한다고 최근의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사실 브라질 의료계라고 모유수유가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 엄마와 아기 사이에 일체감을 심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 그동안 신문이나 텔레비전 광고가 분유를 먹이는 엄마들의 멋있는 장면을 부각시킴으로 많은 여성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모유 수유를 어렵게 생각하고, 마치 "엄마의 애정어린 손길로 분유를 먹은 아기가 나쁜 방법으로 혹은 부주의한 엄마로부터 모유를 먹은 아기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게끔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유수유를 위한 새로운 켐페인은 바로 그러한 잘못된 여성의 인식을 고치는데서 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한다.

브라질은 이런 잘못된 인식에 따른 모유 수유 때문에 고민하지만 우리 나라는 저출산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가임(可姙)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는 1.17명이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이며, 여성 1명이 평균적으로 평생 한 자녀만 낳아 기른다는 의미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에 가속이 붙는다. 때문에 통계청은 "65세 이상 노년인구가 2026년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육아 위한 사회제도가 필요하다

문제는 '왜 여성이 아이를 적게 출산하는가.' 하는 이유를 찾아보려는 노력과, 저출산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자 희생이며, 적게 낳을수록 자신의 삶이 윤택해진다고 믿는데 있다.

직장에 나가는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은 출산육아제도나 탁아소가 거의 없다시피한 현재의 형편에서, 아이를 하나 이상 낳는다는 것은 사회적 성취 욕구 혹은 여성 자신만의 삶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다. 친정어머니나 시집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양육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엄청난 사교육비가 기다리고 있다. 과외를 안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식을 두고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배짱은 젊은 부모들에게는 없다. 그러다 보니 아예 결혼자체에 대해서도 절박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결국 과제는 아이를 갖고 아이를 한 명이 아니라 그 이상 낳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갖는 것, 그것도 많이 갖는 것이 갖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사회가 되야한다. 이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아이를 갖지 않겠다,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젊은 여성들의 고민에는 우리 나라의 남성우월적인 가정문화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고된 육아를 오로지 여자 혼자서 맡아야 하는 오래된 '법도'가 여성들의 눈과 마음을 닫고 있다.

그러므로 정책을 담당하거나 정책을 유도하는 많은 남성들이 현재의 우리 사회의 이러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의 말처럼 '아이를 늘림으로써 생활이 나아질 때는 아이를 많이 가질 것이다. 반면 아이를 적게 가져야 생활이 나아질 때는 또한 적게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PPFK